

S-Oil, 전망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스프레드 하락에 재고 평가손 ... Q2 영업이익 감소

S-Oil은 2/4분기에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나대투증권은 “S-Oil의 투자매력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 목표주가를 13만2000원으로 낮추어 제시했다.

하나대투증권 이정현 연구원은 “정제사업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 하락이 불가피하고, 4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유사업 재고 평가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S-Oil의 2/4분기 영업이익이 1/4분기보다 16.8% 줄어들어 318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투자 이용주·박상민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1/4분기의 재고관련 이익이 소멸되고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S-Oil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예상 하향에 따라 목표주가를 14만4000원에서 13만원으로 낮추었다.

SK증권도 “정유의 전통적인 비수기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수요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SK증권 손지우 연구원은 “1/4분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업실적과 중국수요 약세를 반영해 201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1.1% 하향 조정한다”며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솔로몬투자증권은 2/4분기 영업이익이 1/4분기에 비해 3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솔로몬투자증권 오승규 연구원은 “재고 정상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5월 드라이빙 시즌의 석유 및 디젤 수요 증가에 따라 정제마진이 개선돼 정유사업 영업이익이 1/4분기에 비해 66.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S-Oil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30>